

Magazine 새벽종

창간호
March + April 2022

변화하는 새마을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표지 이야기

새마을운동이 일궈나가는 새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새벽종〉. 그 첫 호의 표지에는 새벽 종소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를 여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삶 속의 희망을 나누는 잡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4년 5월 창간한 월간 〈새마을〉, 1998년 3월 창간한 「새마을운동신문」에 이어 2022년 3월 새롭게 시작하는 격월간 종합교양문화잡지 〈새벽종〉으로 새마을정신과 시대정신을 이어갑니다.



ISSUE NO.1
ISSN 2799-9343



변화하는 새마을

Prologue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의 위기와 역경을 함께 이겨내
대한민국 발전의 여정을 나란히 걸어온 국민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을 이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명운동을,
상생과 통합을 이루는 평화운동을,
나눔과 돌봄을 위한 공동체운동을,
연대와 협력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벽종〉 창간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젊고 신선한 변화를 독자들과 공유하고,
〈새벽종〉 창간을 향한 새마을가족들의 설렘과 기다림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CONTENTS

March + April 2022

매거진 <새벽중>을 휴대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Webzine

1 새마을 리뷰

06

열림

'새벽중'은 새마을운동의 문화력을 키우는 수단입니다

-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

08

울림

중앙회원단체장, 시·도새마을회장 창간 축하메시지

14

펼침

Young한 새마을운동

18

어울림

MZ세대와 공감하는 새마을정신 KAIST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 KAIST 새마을동아리



22

누림

우리가 몰랐던 진정한 보령의 풍경을 만나다

2 새마을 리뷰



26

이슈 탐독

2022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나라

30

새마을 잇템

뉴 클래식, 새마을 패션 '초록템'

32

새마을 사람들 I

관심이라는 씨앗을 뿌려 희망이라는 꽃을 피우다

- 박영미 외화산 마을공동체 추진위원장

36

새마을 사람들 II

모두의 나눔과 노력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 권오식 경북 상주시협의회장

40

지구촌새마을운동

세계에 기적을 전하다

- 피지, 우간다, 온두라스 시범마을

44

친절한 건강 가이드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구강 관리

48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탄소중립 실천하는 착한 IT기기 사용법

3 새마을 리뷰

50

중앙회 소식

52

시·도 소식

54

현장은 지금

60

새마을 이벤트



발행일
2022년 3월 10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염홍철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3~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 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새벽종’은 새마을운동의 문화력을 키우는 수단입니다

1998년 3월 5일에 창간하여 새마을 소식을 전해주었던 <새마을운동>신문은 작년 말에 제567호로 종간을 했습니다. 저는 <새마을운동>신문의 종간을 아쉬워하면서, ‘시작에서 끝이 오고,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 만물의 흐름’이라는 종간사를 쓴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격월간 잡지 <새벽종>은 새로운 시작의 사명을 띠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중년 이상의 국민들은 ‘새벽종’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시골이나 인구가 적은 도시에 있는 교회에는 종탑이 있었고,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신호로 새벽종을 울렸습니다. 종교를 떠나 주민들은 1990년대 ‘소음·진동규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치는 풍경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또 하나의 ‘새벽종’은 새마을운동의 태동과 함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로 시작되는 새마을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침잠을 깨웠고, 많은 국민들이 새벽 종소리와 함께 동네의 봉사에 참여하거나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하게 했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 <새벽종>이라는 신문이 발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20년대 초 중국 동북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가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창간한 신문이 바로 <새벽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호를 <새벽종>으로 정한 것은 동포들을 ‘깨우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동포들에게 정치적 변화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의에 어긋나면 꾸짖고, 부패한 자를 선하게 되도록 이끈다”는 큰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른 아침의 종소리가 되어 조선 민족을 깨우쳐 준다는 새벽종은 항일무장투쟁의 결기를 보여준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종소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의미로 활용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음악’이라고 하였고, 미사 때 기도 시간을 알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평화의 종’, ‘제야의 종’ 등 의미 있는 타종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종소리를 시와 수필 또는 영화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 박남수 시인은 종소리를 “바람을 타고 들에서 푸름이 된다” 또는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고 표현하였지요.

종은 쇠로 만들어졌지만 그 울림은 흐르는 물소리가 되고 맑은 생명의 소리로 전해집니다. 종소리는 언제 들어도 신선하고, 그 파동은 멀리서 다가왔다가 다시 멀리 사라지는 아쉬움과 여운도 있지요. 더더욱 새벽 종소리는 알리고 깨우치게 하는 성스러운 ‘울림’입니다.

<새벽종>은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문화력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 당시 빛났던 <새벽종>의 정신을 이어 받고, 기독교와 불교 등에서 행하는 의식의 성스러움도 마음속 깊이 담으며 앞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여홍철**



창간 축하메시지

중앙회원단체장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회장
김중복



23년간 우리의 곁을 지켜주었던 '새마을운동'신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새벽종>이라는 힘찬 이름의 소식지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선 현장을 누비며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많은 수범사례를 전해줄 <새벽종>에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새마을운동, 이제 다시 도약하는 새마을운동을 위해 혁신과 변화로 전진하는 우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 변화와 혁신에 새벽종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월이라는 구독주기가 길게 느껴질 만큼 좋은 소식들을 예쁘고 정성스럽게 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벽종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새마을운동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회장
조승희



23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새마을운동'신문이 이제는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우리의 곁에는 <새벽종>이라는 희망찬 새로운 소식지가 다가왔습니다.

<새벽종>과 함께 전국의 부녀회원들은 새로운 도전, 살맛나는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MZ세대를 아우르고 젊은 지도자를 영입함은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새벽종>은 이러한 시기에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면과 소식지로 다가올 것이며 새마을지도자들에게는 참신함과 신선함으로 다가와 다시금 재도약하는 새마을운동의 모습을 널리 홍보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벽종>의 창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영홍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전문수



'새마을운동'신문이 지난 23년간 남겼던 수많은 기록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새마을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큰 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마을운동'신문이 주었던 잉크냄새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올해부터 발행되는 <새벽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선현장에서 함께할 <새벽종>은 지난날의 영광을 되살려 희망찬 마을을 만들고 초일류 국가건설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을 담은 새로운 도전이자 살맛나는 공동체 건설을 위한 선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신문 만큼이나 <새벽종>이 직장·공장새마을운동 회원사와 종사자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새벽종>의 발전을 기원하며 그동안 <새벽종>의 창간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박경수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성장축이 되어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청년의 뜨거운 열정과 장년의 지혜로움이 함께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새마을운동'신문이 더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가지고 새마을잡지로 다시 태어나 가슴이 설칩니다.

흔히들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색안경을 끼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다양한 새마을가족들의 다채로운 소식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말 가슴으로 공감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잡지로서 스스로의 부지런함으로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드는 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길 기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마을운동 잡지의 창간을 새마을문고 가족들의 뜻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박차훈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새벽종>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0년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보자는 구호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이제는 농촌과 국내를 넘어 세계 인류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윤택을 추구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등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물질문명 흥성, 기술혁명의 시대이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양극화와 환경문제, 정신문화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들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새벽종>의 창간이 사람 사는 냄새를 내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만들고 퍼뜨리며, 나와 우리, 마을과 국가, 국가와 세계를 잇는 공동체 운동의 마중물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토종 새마을정신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새벽종>의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도새마을회장

서울특별시새마을회 회장
김일근



새마을잡지 <새벽종>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벽종>의 전신인 '새마을운동'신문은 전국의 새마을운동 소식을 쉽고 빠르게 기사화하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자 등불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신문은 지난 23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 새마을가족들과 회로애락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같은 시대적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새마을운동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신문이 23년 동안 쌓아온 노력과 역량은 새마을운동 잡지 <새벽종>에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새벽종>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마을가족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잡지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새마을회 회장
제종모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그간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써 내려간 '새마을운동'신문이 제667호로 종간을 맞이하고,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종을 울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종과 함께 아침을 열었던 새마을노래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봄입니다. 봄바람과 함께 만난 <새벽종>은 여러분의 활동 소식을 동력으로 많은 소리를 전국 곳곳에 울리겠지요.

'새마을운동'신문으로 담아온 모습들은 앞으로는 새로운 잡지 <새벽종>과 함께 쌓여 또 다른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전국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빌며, 새 이름, 새 모습으로 찾아온 <새벽종>에서 다시 만날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대구광역시새마을회 회장
최영수



새마을운동은 50여 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 시대, 그 사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지속적인 변모를 해왔습니다. 새마을소식을 알리는 간행물도 꾸준히 변화하여 이번에 더욱 더 발전적으로 바뀐 연속간행물인 <새벽종>을 창간하게 된 것을 대구광역시 새마을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울려 퍼진 <새벽종>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종소리였습니다. 앞으로 <새벽종>이 새마을의 훌륭한 역사, 다양한 정보 전달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무궁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인천광역시새마을회 회장
김의식



봄이 시작되는 좋은 계절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새벽종>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2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제567회에 걸쳐 일선 현장의 새마을소식을 전해 주었던 '새마을운동'신문의 중간 소식은 서운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보관이 쉽고 언제든 다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잡지로 발행된다고 하니 <새벽종>에 가는 기대가 큼니다. 매월 두 번씩 발행되었던 '새마을운동'신문을 통해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곤 했는데 이제는 책자로 발행된다고 하니 지인들에게도 새마을소식을 쉽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신문을 만드느라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격월로 발행되는 <새벽종>이 새마을운동을 홍보하는데 더욱 유용한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새마을회 회장
정경주



'새로운 도전, 살맛나는 공동체'를 위해 힘찬 새 발걸음을 시작하는 <새벽종> 창간을 새마을가족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창간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신 새마을운동중앙회 염홍철 회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동상을 바르게, 그리고 널리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창간한 새마을운동 소식지 <새벽종>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담아내는 홍보매체로서 많은 관심과 기대가 됩니다. <새벽종> 창간을 계기로 새마을운동이 한 차원 높은 운동으로 승화발전되고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광주시 새마을가족과 함께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전광역시새마을회 회장
양용모



1998년 발간 이후 20여 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 새마을소식을 전해주던 새마을운동 신문이 중간하고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잡지 형식으로 <새벽종>이 창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마을운동'신문을 통해 전국 최대의 민간조직인 새마을단체가 전국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생생한 봉사활동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단체장으로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항상 느끼곤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나갈 <새벽종>잡지가 앞으로 새마을운동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깊이 있는 주제로 새마을운동의 차별화된 콘텐츠 생산을 통해 종합교양지로서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제공을 기대해 봅니다. 임인년 새해 새마을가족 모두 뜻한바 모두 이루시고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새마을회 회장
정대식



새마을운동 52주년, 새로운 50년의 큰 걸음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종>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종의 울림은 원통 안 빈 공간의 음관을 통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종소리가 깨끗하고 듣는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산사의 새벽 종소리는 만물을 깨우고 나쁜 일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합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 새마을이 <새벽종>이라는 잡지를 창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새벽종> 창간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땀 흘리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울림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공동체로 전달되어 내가 아닌 우리가 '새로운 도전으로,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송재필



어언 23년간 제567호를 발행했던 '새마을운동'신문은 차곡차곡 새마을의 역사가 되어 훗날의 '세계기록유산'을 준비하는 결과물이 되었으며, '새마을운동'신문에 담긴 기사들은 새마을인들이 현장에서 흘린 땀과 노력과 정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새 출발하는 새마을운동 잡지 <새벽종>의 출간을 경기도 새마을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새벽'은 희망입니다. <새벽종>은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언제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새마을지도자들의 삶과 애환, 땀과 활동들을 고스란히 담아 '새벽종'을 널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종>이 절망하는 이들과 지구촌 개도국 이웃들에게 '희망의 소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회장
직무대리 임한석



'새마을운동'신문이 1998년 창간한 이래 23년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해 12월에 아쉽게도 종간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신문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적인 활동들을 새마을가족과 온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신문은 종합 정보지인 <새벽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장 새마을운동의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우수 추진사례를 발굴하고, 새마을운동의 추진목표인 '새로운 도전, 살맛나는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의 위상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강원도새마을회 회장
박형배



그동안 주민의 행복과 지역공동체를 가꾸는데 지도자들의 성취와 기쁨, 고난과 애환, 긍지와 자랑을 담아내며 새마을지도자들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던 '새마을운동'신문이 제567호를 마지막으로 우리 지도자들 가슴 속 보석함에 고이 간직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대의 물결을 타고 <새벽종>잡지로 거듭나게 된다니 더욱 기쁘고 기대가 큼니다. 잡지 형식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니 이전보다 더 깊고 다양한 새마을의 참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잠든 마을의 시작을 알리던 새벽종처럼 3월 창간되는 <새벽종>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갈등 심화, 어려운 국제적 환경 등 현재의 곤란을 이겨내고 제2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는 새마을기관차가 되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새마을회 회장
이화련



〈새벽중〉창간호 발행을 12만 충청북도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마을운동’신문이 오랜 시간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의 현장 활동을 널리 알렸듯이, 〈새벽중〉 또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더 깊이 있고 생생하게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정책방향, 중점과제는 물론 다양한 활동소식을 담아냄으로써 새마을지도자들의 눈과 귀, 입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새벽중〉을 웹진으로도 만날 수 있단니 이 또한 축하할 일입니다. MZ세대와의 다각적인 교류를 잇는 중요한 통로로, 새마을운동의 세대를 보완하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돌봄과 나눔으로 실천되는 그 현장을 오롯이 담아내는 소중한 역사의 장이 〈새벽중〉을 통해 만들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
이경용



〈새벽중〉이라는 이름의 새마을잡지를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벽중〉의 전신인 ‘새마을운동’신문이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현장을 마을단위까지 찾아 생동감 있고 빠르게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새마을운동 잡지 〈새벽중〉은 보다 광범위하고 미디어로는 전하기 힘든 현장 속의 새마을운동을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벽중〉이라는 이름처럼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중립운동 실천을 위한 국민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가장 빠른 소식지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의 생생한 새마을운동 현장을 더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어 범국민적인 지역사회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을 홍보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상북도새마을회 회장
이종평



2022년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도전, 살맛나는 공동체’라는 목표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도전의 일환으로 23년간의 ‘새마을운동’신문을 종간하고 새마을운동 잡지인 〈새벽중〉을 창간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하고 노력하여 〈새벽중〉을 탄생시킨 영홍철 중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은 국가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이 몸소 실천한 성공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합니다. ‘새마을운동’신문은 지난 선배 새마을지도자들의 발자취를 감동적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벽중〉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희생을 생생히 기록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상남도새마을회 회장
안화영



〈새벽중〉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새마을운동의 대내외 활동을 대변해줄 새로운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새마을가족들의 맘 흘린 보람의 현장들이 생생하게 전달되어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롭게 창간하는 새벽중이 다양한 소식들과 정보를 통해 전국 새마을가족들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건강한 잡지로 뿌리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스스로 새로운 물길을 내고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처럼 새마을운동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사랑방과 같은 잡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전라북도새마을회 회장
구자강



우리의 자긍심 새마을운동 잡지 〈새벽중〉창간을 축하드립니다.
23년 동안 발간된 신문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잡지로 전환하고, 새마을가족뿐 아니라 관심있는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웹진 모습을 갖춘다 하니 정말 기쁩니다.
절대적 가난을 극복한 새마을운동은 150개국의 지도자가 교육을 받았고, 18개 시도 곳곳에서 탄소중립 생명운동, 평화운동, 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바, 소중한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가독성을 가진 새벽중에 소개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극대화된다면 지도자들의 봉사는 더욱 빛나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현장의 사례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새벽중〉 제호처럼 전국에, 지구촌 곳곳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여 행복에너지를 듬뿍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을 염원해 봅니다.

전라남도새마을회 회장
이귀남



지난 23년간의 ‘새마을운동’신문을 뒤로하고 보다 더 현장감 있고 새마을운동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잡지 〈새벽중〉을 창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1998년 3월 5일 창간호부터 23년간 새마을운동을 함께 펼쳐오며, 새마을지도자들의 맘과 눈물을 지면에 담으며 새마을운동을 대변해 왔던 ‘새마을운동’신문이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젊음과 함께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새벽중〉으로 창간하게 됨에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켜켜이 쌓은 23년의 기록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전국 곳곳에서 울리는 〈새벽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회장
이기창



새마을운동 현장의 소리를 23년간 실어 날랐던 ‘새마을운동’신문이 종간되어 새로운 소식지인 〈새벽중〉이 탄생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K팝, K영화, K드라마와 같이 K새마을운동이 전 세계 속에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새벽중〉이 그 역할의 선봉에 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새마을운동 방향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을 구석구석에서 참 봉사를 하는 분들의 활동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벽중〉은 앞으로 손에 잡히면 꼭 책장을 넘겨 읽어만 하는 보석같은 소식지로 탄생되기를 희망하면서 앞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내는 훌륭한 소식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북5도새마을회 회장
조성원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새벽중이 울렸고, 긴 잠에서 깨어난 우리는 오랜 가난의 굴레를 떨쳐 버리고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새벽중이 울리고 우리는 지구촌공동체운동이라는 씨앗을 뿌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심었습니다.
새벽중은 변화의 시작이었고, 새마을정신으로 늘 깨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도록 해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새벽중이 우리민만의 것이 아니라 지구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에도 울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사는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새벽중〉 창간을 축하합니다.

Young한 새마을운동

“아직도 새마을운동이 있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곳곳에 나부끼는 새마을기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예전 새마을운동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졌다. 과거의 새마을운동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상징된다면 지금 새마을운동의 키워드는 ‘함께 잘 살아보세’이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오늘의 새마을운동.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꼽는다면 ‘Young한 새마을운동’으로의 변화가 아닐까 싶다. 새로운 방향, 색다른 방법, 그리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관심과 참여로 변화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그 이모저모를 담아본다.

write. 성혜경 illust. 버리



캠퍼스의 찐 뉴트로, 대학새마을동아리

마을길을 넓히고 지분을 개량하는 생활개선사업 중심에서 시대가 처한 기후위기와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콘텐츠로 변모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대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마친 국내 대학은 한밭대, 동아대, 신성대, KAIST, 한남대, 건양대, 배재대, 울산대, 동서대, 경북대, 충남대, 울산대, 한국영상대, 단국대, 영남대, 원광대, 제주대, 명지대, 인천대, 광주대, 경기대, 순천대 등 51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KAIST와 한밭대, 한국영상대, 울산대 등 26개 대학에는 대학새마을동아리가 결성됐다.(2022년 2월 기준)

근면·자주·협동 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계승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이 새마을운동의 주인공이 되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해 화합과 통합을 실현해나가는 길에 동행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20년대 감각 입은 새마을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 동네 저 동네, 집집마다 새벽을 깨우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던 때가 있었다.

1972년 새마을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새마을노래가 2020년대의 감각으로 변신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21년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간 새마을노래 편곡 공모전을 실시했다. 본 공모전은 새마을노래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신하게 편곡, 새마을운동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국악, 트롯, 힙합, 클래식 등 장르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편곡 공모전은 총 42곡이 응모한 가운데 창의성, 적합성,

표현성, 대중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외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투표 결과를 최종 집계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 대상은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한 김민석 씨가 소속된 '파랑'팀(권도완, 송승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랑'팀의 대상곡은 시티팝 풍의 디스코로 편곡돼 젊은 감각과 세련된 느낌을 잘 살려낸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상금 100만 원)에 선정된 최윤서 씨는 국제예술대에서 작곡을 전공 중으로 국악과 클래식을 접목한 퓨전 편곡으로 새마을노래를 품위 있고, 멋스럽게 탈바꿈시켰다. 이외에도 우수상 각 2곡(상금 50만 원)과 장려상 2곡(상금 20만 원)이 선정, 총 6곡의 새마을노래가 탄생했다. 수상작은 유튜브, 홈페이지, 새마을노래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는 새마을운동을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MZ세대가 만들고 모두가 함께 보는 새마을영상

새마을운동 청년홍보단 '새럽(SAELUV)'은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새마을운동과 청년들을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

2021년 3월 11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만9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여 총 8개 팀의 '새럽(SAELUV)' 1기가 출범했다.

영상크리에이터들로 구성된 '새럽(SAELUV)' 1기는 4월 21일 발대식 이후 2021년 11월까지 활동하며, 생생한 새마을운동의 현장은 물론 MZ세대가 바라보는 새마을·세대갈등·탄소중립 등을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유튜브 채널과 SNS 등에 소개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를 찾아가는 브이로그 영상, 재활용 분리배출 꿀팁을 소개하는 영상, 새럽 산악봉사회의 산악청소 활동을 담은 영상 등의 콘텐츠들에는 '새럽(SAELUV)'이 새마을운동을 알아가는 과정이 녹아 있어 조금 더 가까운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다양한 이야기를 트렌디하고 창의적으로 알리는 새마을운동 청년홍보단 '새럽(SAELUV)', 아이디어와 정성이 듬뿍 담긴 영상들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을 만나고 이해하고 공감하길 기대해본다. 🌱

Mini Interview

'새럽(SAELUV)' 1기 호두랑팀 김봉근



Q — '새럽(SAELUV)'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A — 평소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고 이전 직장에서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기회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청년홍보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특히 같이 활동하는 MZ세대의 새럽1기 팀들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지,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궁금했고 그 관심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구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Q — 본인이 만든 영상 콘텐츠를 소개한다면?

A —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홍보하거나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탄소중립이라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무겁고 책임감이 높은 활동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소개하는 생활 속 실천수칙을 보면 아주 사소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타인을 위한 활동이기 보다는 개인의 건강과 비용 절감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나와 환경을 한꺼번에 지킬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Q —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A —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끊임없이 이어온 활동 중 하나가 환경정화 활동입니다. 저는 '플로깅(가벼운 조깅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반려견 '호두'와 함께 하천 플로깅을 해봤는데 '일석사조'의 활동이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반려견 산책, 정화 활동, 새럽 활동 홍보까지.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 '새럽(SAELUV)' 활동의 소감 한 마디!

A — 새럽 활동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히는 새마을운동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새럽1기 활동은 끝났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실천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은 항상 제 자신을 다잡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새럽이 다음 기수까지 이어져서 50기 100기까지 그 역사가 깊어지고, 기였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운 순간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MZ세대와 공감하는 새마을정신 KAIST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KAIST-SAE 봉사단

요즘 유독 눈에 띄는 문화 트렌드, '낯선 조합'이다. 트레이닝 바지에 수트를 걸치는 믹스매치룩, 참기름 아이스크림 같은 괴상한 조합의 음식 등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만나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기도 한다.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최첨단 학문을 선도하는 KAIST의 만남 역시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둘의 만남은 이미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젊은이들, KAIST 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본다.

write. 성혜경 photo. 이민희



새마을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재관 부회장 저는 1970년대에 한국을 크게 발전시켰던 새마을운동이 우리 KAIST의 새마을동아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이 생겼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리더십센터 선생님들을 통해 새마을동아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새마을운동과 KAIST학생들의 봉사정신 그리고 창의력이 결합되면 큰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김서경 회장 교내 신문사에서 봉사 동아리에 대해 취재하던 중, KAIST-SAE 봉사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왔었고 새마을봉사단원들과 함께 진행할 활동들이 재밌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Xu Xin 국제부 저는 6년 정도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특히 동물, 교육 및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AIST신입식사로써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열정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최첨단 학문을 선도하는 대학 KAIST, MZ세대, 새마을운동. 언뜻 생각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관 부회장 위 세 개의 단어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세대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들은 새마을운동을 역사 수업시간에만 접할 수 있을 뿐 일상에선 접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실질적인 활동은 현재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고 여러 대학교에 새마을동아리가 설립되어 그 활동이 전국적인 것을 생각하면 홍보가 덜 되었을 뿐, MZ세대와 KAIST사이에 큰 거리감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장혜규 교육부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MZ세대와 최첨단 학문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최첨단 학문, 그리고 MZ세대들의 창의성이 결합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걸맞은 방향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Xu Xin 국제부 확실히 서로 잘 어울려요!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까이 책임 있는 행동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MZ세대로서 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김서경 회장 솔직히 제 주변에는 아직도 새마을운동에 대해 ‘올드’

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사회에도 충분히 적용되어야 할 가치 있는 운동으로 생각됩니다. 현대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구촌의 발전을 생각하는 새마을정신은 이 시대의 아픔을 직접 겪고 있는 MZ세대가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혜규 교육부 역사책에 나오기도 하고, 현재 주변에서 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 있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한 새마을정신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필수적이었으며,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MZ세대에게 필수적으로 전파해야 하는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Xu Xin 국제부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정신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이 보다 젊어지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재관 부회장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실패해도 응원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면 젊은 세대들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할 것입니다.

장혜규 교육부 새마을운동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새마을운동을 쉽게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친근감을 주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새마을운동을 친숙하게 노출시킨다면 세대에 따른 거리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IST에 처음 만들어진 새마을동아리를 이끌게 된 소감을 들려주세요. 부담감도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관 부회장 새마을운동은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데, 그러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거라 살짝 긴장됩니다. 하지만 동아리 발대식 때 뵈었던 분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와 저희 동아리원들의 열정을 보니 미래가 많이 기대됩니다.

김서경 회장 기대도 많지만 솔직히 부담도 됩니다. KAIST-SAE 봉사단은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꾸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현재 부원은 12명인데, 회원 모집을 통해 함께 가꿔나갈 사람들을 더 모으고 싶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한다면요?

김서경 회장 ‘함께 잘살기’라는 목표만 같다면 누구든 쉽게 들어와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봉사활동이 아무리 스케일이 작은 것이더라도 분명히 지역사회와 지구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혜규 교육부 직접 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데 이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Xu Xin 국제부 모든 유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마을동아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KAIST-SAE 봉사단의 계획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정재관 부회장 일단 국내에서는 연탄 배달 등의 이웃돕기 그리고 멘토링 등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육 봉사, 새마을운동을 젊은 세대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KAIST학생들의 적정 기술 연구를 통한 현지인들의 삶의 질 회복 및 교육 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서경 회장 우선은 대전시새마을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후 점차 저희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찾거나 기획하여 참여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환경포럼, 캠페인, 북클럽, 교육 멘토링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 해외활동은 구체적으로 기획된 것이 없지만, 온라인 소통 및 교육 봉사, 적정기술 연구 및 교류 등의 콘텐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다른 봉사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KAIST-SAE 봉사단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재관 부회장 KAIST학생들의 성실함과 창의력은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에서 큰 활약을 보일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로 새마을운동에 오랜 기간 몸 담으셨던 분들과 협업하여 새마을정신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전파할 것입니다.

김서경 회장 아직은 12명으로만 구성된 작은 단체이지만, 교내외에서 새마을운동과 저희 KAIST-SAE 봉사단에 관심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역량을 토대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혜규 교육부 새마을동아리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새마을정신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로 새마을운동에 오랜 기간 몸 담으셨던 분들과 협업하여 새마을정신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정한 보령의 풍경을 만나다

충남 보령 여행

그곳에 봄기운을 느끼며 자전거로 달리기 좋은 길이 있었다. 친근하고도 낯선 풍경의 바다가 있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비로운 섬이 있었다. 천혜의 자연을 병풍처럼 두르고 차분한 고요를 건네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그리고 두 바퀴로 이 풍경을 담백 즐기는 이들이 있었다.

write. 김진희 photo. 이민희

자전거 타기 좋은 천변

보령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대천천변에 섰다. 수더분하고 아늑한 풍경이 두 눈에 편안하게 들어온다. 대천천은 보령시에서 시행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3년 전 마무리되면서 탈바꿈되었다. 대천동(남대천교)에서 죽정동(청천저수지)에 이르는 구간에 산책로, 자전거 도로와 잔디 블록, 농구장 등 시민 편의 시설들이 가지런히 들어서 보령시민의 쉼터이자 힐링 공간이 되었고, 전국 자전거 여행자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잘 닦여진 길을 따라 남대천교쪽으로 달리다 보면 갈대가 환영하는 서해 바다 합류지점을 만나고 마침내 출렁이는 바다가 등장하니, 자전거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근사한 라이딩 로드가 아닐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원래 대천천 하류에 놓여 조선시대 남포현과 보령현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리를 복원

해둔 한내돌다리(충남 유형문화재 제139호)도 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잠시 머물러 보고 가야할 포인트이다.

아직 날씨가 매서운 가운데, 천변을 따라 선명하게 새겨진 자전거 도로 위에 선 이들이 있었다. 보령시를 자전거 이용자들의 메카로 만드는 데 일조 한 충남 보령시 Y-SMU포럼(대표 임상우) 청년봉사대(이하 청봉회) 회원들이다. 청봉회는 1991년 조직된 이래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보령시민 한마음 자전거타기' 운동을 추진했다. 이는 자동차대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더불어 유산소 운동으로 시민의 건강까지 증진시키는 시민운동이다.

전국 새마을(지)회 중에서도 Y-SMU포럼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유독 두드러져 활기가 넘치는 청봉회는 오늘도 두 바퀴로 달려 아름다운 보령을 누빈다.



1
대전천변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는 청봉회 회원들

2
아름다운 풍경으로 드라이브나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보령호 (사진 제공 : 보령시)



익숙하고도 새로운 바다

충남 보령시지회에서 추천한 보령 여행지를 향해 걸음을 옮긴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대천해수욕장이다. 대천천이 끝나는 지점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가면 그 이름도 익숙한 대천해수욕장을 만나게 된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한여름이면 세계적 축제인 '머드 축제'에 수많은 인파로 들끓었던 대천해수욕장의 한 겨울 모습은 호젓하고 여유로웠다.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 백사장도 끝도 없이 이어져 있고, 파도가 밀려들고, 수평선과 닿은 맑은 하늘의 그림 같은 풍경에 반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다 위에 붓으로 찍어 놓은 듯한 크고 작은 섬들, 백사장 남쪽에는 자연이 빛어낸 기암괴석, 그리고 백사장에 귀여운 발자국을 내는 갈매기의 모습조차 한 폭의 유려한 그림 같다. 깨끗하고 고운 백사장을 걸으며 출렁대는 파도와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났다는 실감이 드는 순간이다. 대천해수욕장에는 국내 최초의 해변조각공원과 아티스트, 아코트, 아베로에스 길목 등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줍트랙과 스카이버이크 등 레저 체험 시설도 다양해 지루할 틈이 없다.

한국의 미를 품은 섬

보령하면 대천해수욕장만 떠올리기 쉽지만 대천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령팔경 중 하나인 보물 같은 섬 '죽도'를 만날 수 있다. 죽도는 예부터 대나무가 울창한 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현재는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죽도가 지닌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한국식 전통정원 '상화원'을 만날 수 있다. '상화원'은 우리 전통 한옥을 복원한 '한옥마을', 대나무 숲과 해수에 둘러싸인 '빌라단지', 섬 전체를 멋스럽게 연결한 지붕형 '회랑', 낙조를 근사하게 즐길 수 있는 '석양정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즈넉한 한국의 미와 그와 잘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여행지이다.

한 시간이면 섬 전체를 휘돌아볼 수 있는데, 회랑을 따라 햇살에 부서지는 바다를 옆에 끼고 걸으니 아름다운 풍광에 연신 감탄이 터진다. 상화원은 지금 봄 맛을 준비가 한창이다. 봄이 되면 빌라단지 숙박 예약을 재개한다고 한다. 여유롭게 하루 정도 묵을 수만 있다면, 이곳이야말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여행지로 제격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요하고도 큰 울림을 주는 호수

보령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보령호이다. 보령호는 성주산과 성태산에서 발원한 두 개의 작은 하천이 만나 흐르는 웅천천에 댐을 세워 물을 가둔 인공호수로, 그 규모는 여의도 20배에 달한다고 한다.

서해 인근 7개 시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산업적 가치가 높은 호수인 동시에 철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드라이브나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보령호를 감싸고 있는 미산면 617번 국도는 20년 넘는 수령을 가진 빛나무가 4천여 그루 길게 늘어서 봄이면 하늘을 다 가릴 만큼 풍성한 벚꽃 터널이 만들어지고, 가을이면 울긋불긋한 단풍이 짙게 물들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커다란 두 개의 산을 품은 풍광이 그림을 그려놓은 듯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든다. 보령댐 근처 공터에 내려 호숫가의 경치를 감상해본다.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이 시간 이곳. 바람소리와 물결소리 물새들 지나는 소리가 고요하고도 큰 울림으로 들려온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삶의 터전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게 해주는 여행지인 이곳. 보령에서의 하루가 잠잠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

충남 보령시 Y-SMU포럼 청년봉사대



Q 충남 보령시 Y-SMU포럼(이하 청봉회)만의 대표적인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청봉회는 1991년 조직되어 20년 넘게 매년 '보령시민 한마음 자전거타기 대회', '사랑의 헌혈운동', '홀몸 어르신 사랑의 쌀 연탄배달',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전천 수중정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봉회는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이 좀 더 행복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Q '보령시민 한마음 자전거타기 대회'를 주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그 성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보령시민 전체에게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철저히 방역을 준수한 가운데,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성공리에 대회를 치렀습니다. 저희는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소에도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며 자전거타기 운동 홍보 및 장려도 합니다.

Q 충남 보령시 Y-SMU포럼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80~90여 명의 청봉회 회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함께 자라며 부모님들이 새마을운동을 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단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올해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전거타기 대회'를 비롯해 사랑의 헌혈 운동 등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천 수중정화활동'은 젊은 봉사단원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데요, 회원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어서 올해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보령시의 시책사업인 칭찬 릴레이도 활발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칭찬 릴레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밝은 영향력이 끼쳐지길 바랍니다.

2022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나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어 세계경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 생각할 만큼 달라졌다. 작은 섬나라에서 대륙까지 거미줄처럼 얽여있는 세계의 물류망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서고 이어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정적 재고수준을 놓쳐버렸다.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벌어지고 확보하지 못한 자원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전력이 멈춘다. 공급물자가 딸리면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시장은 힘들어지는데 더 침체되는 경제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급기야 세계협정조약도 넘어서며 자국우선주의로 나부터 살자며 힘을 사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선취하려 한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겨루기로 흔들리던 자유무역은 무너지고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다.

write. 김용훈 시사평론가



폭풍의 키는 테이퍼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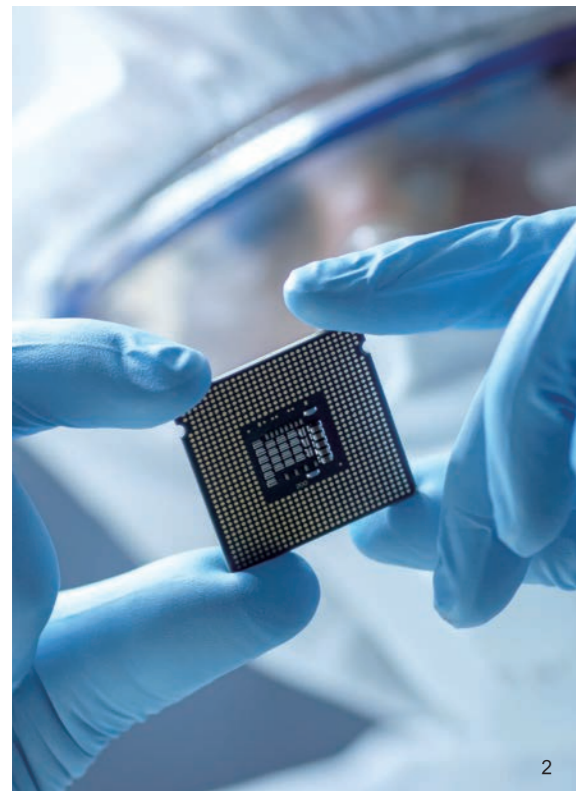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국가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하여 시중에는 통화량이 넘친다. 이자는 싸고 수중에 돈을 확보하기가 쉬워져서 사람들은 쉽게 대출하여 소비하거나 투자 활동을 했다. 그런데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시중에서 접하는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다. 사용하던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씹뽀이를 줄이고 경제가 위축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는 살려야겠고 시중에 넘치는 통화량은 물가를 올리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테이퍼링(Tapering)은 정책적으로 늘려놓은 자원과 재정을 점차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이것을 시중에 충격 없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다. 이는 전 세계 국가가 현재 고민하는 문제이다.

재난 상황에서 온전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게와 기업은 금융권에서 많은 돈을 빌려서 생활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시장의 경제가 경색되면 세금을 줄여주고 중앙은행에서는 통화량을 늘리고 정부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

1
지난 1월 11일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발언하는 파월 미 연준의장

이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는 회복의 사인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이클을 살리고자 코로나19로 멈춘 경제에 대대적 재정적 지원을 펼쳤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절되지 못하고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넘치는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금리정책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통화가 은행으로 돌아간다. 정부의 통화정책으로 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면 개인과 기업들에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변동한다. 대출이자를 내며 무난히 대출금을 돌리던 가게와 기업은 지급해야하는 이자가 증가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부채를 줄이거나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상승하던 물가가 떨어지고 과열된 가격들이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금리는 통화정책에 자주 등장하는 카드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상당기간 저금리로 돈을 사용하였고 익숙해졌다.



2

때문에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시장에 일대 지진이 일어난다. 게다가 지금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코로나 시국이 아닌가. 한껏 올라간 자산가격의 거품들이 일시에 꺼지면 올라선 금리로 시장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목적보다 시장의 혼란으로 더 큰 충격을 만날 수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 그 다음은 파산이다. 가게와 기업의 파산 도미노는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금리인상의 경고만 수차례 하면서도 인상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시선을 끄는 BIG3

세계는 4차 산업혁명기술의 도입으로 달라지고 있다. 사람의 힘으로 굴러가던 산업에 기계가 동원되면서 획기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했고 컴퓨터가 조합되면서 자동화로 적은 인력에도 굉장한 효율을 만들었던 이제까지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은 네트워크 시대이다. 사람과 사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모든 동작에는 데이터가 생산된다. 때문에 산업을 선도하고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로 지목되는 BIG3의 경쟁이 치열하다.

4차 산업기술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반도체이다.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반도체 산업의 파이를 키웠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자동 연결되어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반도체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반도체라는 것은 비메모리반도체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칩에 넣어 목적하는 기능을 하도록 만든 집적회로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동영상 플레이하고 녹음하며 사진을 찍는 등의 기능을 탑재하면서도 작고 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의 치료 및 건강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생물체의 행동 또는 생체 데이터를 전자기술과 연결하여 새로운 건강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코로나백신처럼 mRNA를 사용한 백신을 만들어 한계에 접하고 있는 건강이나 환경 등에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 준다. 바이오기술의 접목 분야는 의약이나 화학에 머물지 않고 연료나 농업, 환경과 관련하여 무궁한 개발과 접목이 가능하여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기간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키로 작동할 수 있다.

2
4차 산업기술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3
서민금융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3

자동차 분야는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었다. 최근 하나 둘씩 시중에 보이는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하여 자동차의 동력이 변화하고 있다. 동력뿐 아니라 주행도 스스로 하는 차량이 나왔다. 기존의 차량과 다른 미래차로 불리는 것들은 내연기관은 물론 작동체계(OS)도 다르다. 전자통신기술이 조합되어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한 자동차로 변신한다. 통합제어시스템으로 자율주행은 물론 센서 기능을 이용하여 승차자의 편의를 구축한다. 굳이 운전자가 필요 없이 승차자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주행 명령으로 움직이는 이동기구가 되어 기존의 자동차들이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차를 더 진화시키는 부품, 센서, 프로그램, 동력, 시스템 등의 기술들이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2022 우리 경제는 무엇이 달라지나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 올랐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기업들은 임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올해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경제 전반에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피해 부분을 중심으로 내수를 일으키며 작년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출 기운을 이어가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탄력적인 대응을 펼치고 가계 부채, 한계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며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화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가장 큰 목표는 경제의 정상화로 경제주체들이 저마다 활력을 찾는 것이다. 정부는 곧 당면하게 되는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을 미리부터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 햇살론, 맞춤형대출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관리한다. 소상공인들에게 36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자금을 공급하고 신산업집중 육성 등으로 새로운 동력이 되는 BIG3 산업으로 끌어올리며 특화된 지원을 펼친다. 민간의 소비회복을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소비쿠폰 발행,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준다.

전대미문의 재난 위기를 넘어서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보다 마음을 줄이는 사람이 바로 시민들이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일상은 한계를 경험했다. 1970년대 새마을노래처럼 어려운 환경이지만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꿔 살기 좋은 내 마을, 살기 좋은 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

뉴 클래식, 새마을 패션 '초록템'

패션계에서 뉴 클래식 트렌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거부감 없는 무채색보다 밝고 선명한 컬러의 아이템을 과감하게 매치하는 것이 뉴 클래식 스타일링의 기본. 이런 트렌드 속에 '새마을 운동복'으로 상징되는 초록색 트레이닝복이 패피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새마을운동 트레이닝복과 함께 티셔츠, 모자 등을 부르는 '초록템'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초록템의 매력을 만나본다.

write. 조수인

패셔너블 초록템

새마을운동 패션



색채심리학에서 초록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색이자 안전과 보호, 회복을 상징하는 색이다. 때문에 환경단체나 봉사단체, 금융기관의 심볼에 초록색이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일까, 스타일리쉬한 쪽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초록색이 요즘은 트렌드 컬러로 각광받는 중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따라했다간 안 좋은 추억만 남길 수도 있는 초록템. 어떻게 하면 초록템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도 실패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첫째, 전체 스타일에서 초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초록색 자켓에 초록색 슬랙스를 입고 초록색 가방까지 든다면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부담스러울 테니 말이다. 시작은 원 포인트 아이템으로 초록색 의상이나 소품을 한 두 가지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초록과 잘 어우러지는 오렌지나 핑크, 옐로 계열을 매치해 볼 것! 새마을운동 티셔츠에 화사한 색상의 팬츠나 스커트를 매치하면 패션 궁합이 잘 맞는다. 봄이라 더 눈이 가는 새마을 패션 초록템. 무채색에 익숙한 당신이라면 초록템으로 한번쯤은 과감해져 보는 건 어떨까? 🌱

관심이라는 씨앗을 뿌려 희망이라는 꽃을 피우다

박영미 외화산 마을공동체 추진위원장

파주 광탄면에 있는 외화산마을은 긴 세월 이렇다 할 변화 없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왔다. '마을을 생기고 예쁘게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관심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박영미 외화산 마을공동체 추진위원장. 그녀가 뿌린 씨앗은 이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주민과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에 '2021 전국 우수마을 공동체 뽑내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이라는 희망의 꽃을 피워냈다.

write. 왕보영 photo. 이민희



1

창고 벽화를 그리고 있는
마을 어르신



정체된 외화산마을의 변화를 꿈꾸다

산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모습이 마치 꽃으로 둘러싸인 것 같다고 하여 지어진 외화산마을. 실제로 입구를 제외한 모든 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농촌 마을로, 이곳엔 80여 명의 주민이 터를 잡고 있다. 아이에서 성인이 된 자식들은 타지로 나간 지 오래, 주민 대부분이 60세 이상인 고령의 마을이다. 그 때문일까. 꽃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마을은 조용하다 못해 생기마저 없어 보였다.

“제가 외화산마을로 시집와서 산 지가 32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대전차 방호벽, 더 이상 이용할 아이들이 없어 방치된 놀이터를 보고 있는데 어쩐지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각자 농사일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과이다 보니 공동체 의식이 없기도 하고, 마을 내 문화생활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었죠. '마을이 좀 더 예뻐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14여 년 간 새마을운동 부너지도자로 활동하며 봉사나 공동체 활동에는 자신이 있었던 그는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실천했다. 마을 이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다시 피는 꽃마을 외화산 마을

공동체'라는 공동체 사업명을 짓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 그녀의 계획에 뜻을 합한 5명의 주민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더 살기 좋은 외화산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마을의 문제점, 꿈꾸는 마을의 모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그들이 꿈꾸는 마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민들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 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마을 가꾸기에 참여해 밝고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것. 그리고 탄소중립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개선으로 파주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친화적 마을로 변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의견을 나눴다. 그런데 의견을 나누면 나눌수록 막막해졌다. 공동체 의식의 부재, 소통 공간 부족, 마을에 방치된 시설물, 환경 문제 인식 부족 등 해야 할 일과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등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일단 모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마을의 대문 역할을 하는 오래 방치된 대전차 방호벽을 떠올렸다.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을 바꿔보려 한다고 말해도 어르신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을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방호벽을 예쁘게 꾸미면 마을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먼저 방호벽에 벽화를 그리기 위해 군부대의 동의를 얻고, 방호벽에 겹겹이 쌓인 세월의 때를 벗겨냈다. 근처 공세유 미술관 정미애 관장의 재능기부로 밑그림을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손수 붓을 들고 채색을 했다. 꼬박 하루 반나절이 걸려 완성한 벽화엔 노란 해바라기가 싱그럽게 피어났다. 마을의 흥물이 마을의 명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이후 마을 방호벽 벽화는 언론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으며 마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벽화로 정체되었던 마을의 분위기가 확 바뀌자 주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동참했다. 이후, 방호벽 앞 농기계보관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던 주민들도 마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한 분 한 분 작은 수고로움을 더해주시더라고요

창고에 그린 정이품송과 대나무 벽화, 외화산 마을공동체 명판 등이 마을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로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던 주민들도 마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한 분 한 분 작은 수고로움을 더해주시더라고요. 방호벽 옆으로 꽃밭을 조성할 때에는 90세를 앞둔 어르신들이 허리를 굽혀가며 꽃을 다 심으셨어요. 한평생 농사가 일인 당신에겐 이런 건 일도 아니라면서요. 그때 ‘아, 이 마을이 진짜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방호벽과 농기계 보관창고 벽화 그리기 이후 마을 꾸미기엔 속도가 붙었다.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던 간이 목조 사우나 시설을 개조하여 버스 정류장 쉼터 겸 도서관을 만들고, 마을에 못 쓰는 나무판자를 모아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을 도맡아 하니 본인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2
군사 방호벽 벽화를 그리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박영미 추진위원장

3
마을 언덕에 꽃을 심고 있는 주민들

4
군사 방호벽 벽화 그리기 기념사진



공동체로 다시 피는 꽃마을 외화산

늘 시작은 어렵고 고된 법. 하지만 한번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방호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시작한 물청소는 마을 전체 환경정화 활동으로 이어졌다. 불법 광고물과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 더미 정리로 이어진 것. 특히 분리수거함을 만든 이후 아무 곳이나 버려지던 쓰레기가 분리수거함에 차곡차곡 쌓였고, 이를 계기로 파주시 재활용 수거 차량이 마을에 주 2회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하루에 겨우 3번 오가는 버스로 불편함을 겪었던 어르신들의 교통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천원 택시도 도입됐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활동으로 마을 경관은 물론 진짜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하시던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마을이 회춘한 것 같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 힘이 솟아요.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과 지역 단체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듯 앞으로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외화산마을, 나아가 광탄면과 파주시까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박영미 추진위원장의 말처럼 외화산마을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마을 어귀에 20년간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를 어르신 힘터로 바꿀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고, 마을을 화사하게 해줄 꽃도 새로 심을 계획이다. 바라는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모두의 마음과 애정이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외화산마을은 늘 봄처럼 따뜻할 것이다. ☺

Interview

파주시새마을회 회장 김경선



대한민국 최북단 파주시에 위치한 경기 파주시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4,000여 명의 지도자가 각 17개 읍면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경재 시험의회장과 김명자 시부녀회장, 교통봉사대 조두현 파주시지대 대장과 새마을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은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으나, 올해에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배가 운동 및 육성에 앞장서고, 무엇보다 탄소중립실천에 발맞춰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자 합니다.

모두의 나눔과 노력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권오식 경북 상주시협의회장



우리는 살면서 종종 잘하는 것보다 꾸준함을 이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어려울 법도 한데 경북 상주시협의회는 오랜 세월 이웃과 지구를 위해 날마다 즐겁게 몸과 마음의 나눔을 실천한다. 그들의 성실한 나눔의 중심에 있는 권오식 상주시협의회장을 만났다.

write. 왕보영 photo. 김병구

가늠하기 편한 세상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나눔을 향한
몰입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온 날들.
새마을지도자상주시협의회회 그 값진
마음이 2021년도 전국 종합평가
최우수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우리의 원동력은 즐거운 마음

봉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정작 이 일을 언제부터 했는지, 얼마큼이나 나눴는지 하는 세상의 잣대마저 거추장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가늠하기 편한 세상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나눔을 향한 몰입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온 날들.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새마을지도자상주시협의회회회 값진 마음이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228개 시·군·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전국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 상은 한 해 동안 땀 흘리며 함께 노력한 새마을가족 덕분입니다.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저희 상주시협의회에서는 매월 1회 산지정화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산을 오르고 내리며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한 번 활동을 할 때마다 몇 백 명씩 참여할 정도예요. 아마 전국에서 손에 꼽힐 겁니다.”

상주시협의회가 벌이는 산지정화활동은 실제로 경북에서 유일하다. 지난 2009년 화합과 단결을 위해 시작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월 1회 진행하고 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



덕분에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정착되어 지금의 생명운동으로 이어진 것. 여전히 산지정화활동이 있는 날이면 각 군·면에서 서로 더 잘 준비하려고 온 동네가 잔칫날처럼 들썩인다.

생명운동에 진심을 담다

생명·평화·공동체운동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상주시협의 회지만 그중에서도 생명운동에 진심이다.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일회용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 지금 나타나는 기후 위기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넘어 우리 자식과 후손에게 닥칠 문제니까요. 생명운동에 공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죠.”

보통 행사에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일회용 컵에 물이나 음료를 따라 마시고,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물티슈로 손을 닦곤 하지만, 상주시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이런

풍경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한 시장님이나 시의원님, 그리고 참석자분들 역시 여느 행사처럼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셔요. 컵이 다들 뿐이죠. 생명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회용 컵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로 된 컵이나 그릇을 사용하고 있어요. 핸드 타월이나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제작해 나눠주기도 하고요.”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들을 기꺼이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 대신 스테인리스로 된 음료를 내어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자’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자신들의 수고로움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환경문제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릴 수 있다면,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하던

지난해에는 ‘물은 생명, 낙동강을 살리자’라는 문구를 새긴 기념비도 만들어 ‘낙동강 700리 생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또 흙 살리기의 일환으로 농약 빈병을 수거하기도 했는데, 빈병을 모아 판매한 1,300여만 원은 시 예산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결국 삶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

상주시의 인구는 10만 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인데, 그에 비해 ‘리나’ ‘통’이 많다. 이는 바꿔 말하면 다른 시나 도 보다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양의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1990년대부터 이어오던 상주시협의회의 헌 옷과 고철 모으기 운동은 한번 시작하면 3~4일씩 진행된다. 이렇게 모은 옷은 수백 톤, 고철은 수천 톤에 달할 정도다. 모으는 것도 일인데 분리하는 것은 몇 배의 시간과 공이 더 들어간다. 관찮은 헌옷을 골라내고 고철을 분리하여 판매까지 하는 것이 그들의 몫인데, 새마을지도자는 물론이고 부녀회까지 총동원된다.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은 마을 기금이나 이웃돕기, 감장 행사 등으로 쓰인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로 얻은 수익을 다시 읍·면·동에 환원하는 것이다.

“농촌 고령화로 힘쓸 사람이 없다시피 해요. 나이가 드셔서 더는 사용하지 않는 우사나 고장 난 폐농기구들이 마을 곳곳에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고 고물상에 보내려 해도 인건비와 운반비가 더 드니까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저희가 우르르 몰려가 정리는 물론 청소까지 다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새마을지도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의 봉사가 단순히 일손 돕기를 넘어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의미를 알리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해요.”

권오식 회장을 비롯해 상주시협의회의 모든 이들은 새마을운동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일이 나를 비롯한 모두를 위한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더 재미있고 더 많은 새마을운동을 펼칠 수 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앞으로도 상주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새마을운동과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하는 권오식 회장. 그와 상주시협의회가 앞으로 보여줄 새마을운동과 그들의 즐거운 마음, 빛나는 화합이 만들어낼 상주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 1 낙동강 700리 생명운동 EM휴공 700개 던지기 행사
- 2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새마을 지도자들
- 3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종이컵 대신 사용하는 이중 스테인리스 컵
- 4 상가밀집지역에서 펼친 코로나19 방역활동

Interview

상주시새마을회 회장 이정희



안녕하세요. 상주시새마을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입니다. 1983년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 시군구 조직이 생겼는데, 저희도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해 새마을문고, 새마을회를 포함해 약 1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새마을회의 자랑은 화합입니다. 토착민과 이주민들, 남녀노소, 경제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예부터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경북 내에서 최우수새마을회로 4번이나 선정되기도 했고요. 올해는 지금껏 이어온 봉사활동과 생명활동, 지구 살리기와 함께 조손가정 돕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빛나는 상을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함께’의 의미를 살려 모두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기적을 전하다

피지, 우간다, 온두라스 시범마을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보자는 뜻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 그렇게 진행된 사회개발 운동은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 기반 개선 및 농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현재에 이르러 많은 이들에게 새마을운동은 그저 한 시대를 수식하는 말 중 하나로 기억되곤 하지만, 여전히 새마을운동의 가치는 유효하다.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write. 권용민 photo. 새마을운동중앙회

피지, 새마을운동의 기적을 만든다.

남태평양의 외딴 섬나라, 피지. 관광지로 익숙한 이곳은 오랜 시간 삶을 일구어 왔던 토착 원주민의 독특한 풍습과 아름다운 경치 덕에 휴양 명소로 인기가 높다. 크게 비티레부와 바누아레부로 불리는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으로 320여 개의 부속 섬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만큼, 산림, 광물, 어류 자원도 풍부해 농업이 주요 경제 수입원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며, 최근 들어 꾸준한 수요로 관광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무공해 천연 자연과 순박한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피지는 현재 정치적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이 급감하며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다. 특히, 관광업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지면서 농촌 지역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이전까지 주산업이었던 농업이 피지 경제에서 비중이 축소되면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게 양극화되었고, 낙후된 인프라 시설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환경마저도 수준 차이가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피지로 향한 건 바로 그 이유였다. 경제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인 생활 및 위생 개선에 앞장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은 농어촌 지역의 빈곤 극복과 복지 향상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기에, 피지 지역 특색에 맞추어 접목한다면 지속적인 정책 확산과 지원에도 분명 도움이 될 터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18년 2월 피지 청소년체육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1
'2021 피지 새마을 워크숍'에서 시범마을 지도들이 마을별 사업성과를 들고 있다

나섰다. 그리고 2020년 7월, 7개의 후보 마을에서 타당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3곳을 선정했다. 우선, 각 마을의 여건을 낱알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전체적인 개황과 더불어서 소득원과 주민조직, 주민역량까지 세심히 파악했다. 새마을운동이 다른 국제개발 정책과 차별화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기존 전통적인 국제개발 정책의 경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 기술, 지식 이전에만 주력하여 원조 의존성만 높이는 까닭에 오히려 자력 발전의 동기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았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이념 아래에 주민이 직접 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시민 의식과 더불어 행동에도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행된 새마을운동은 선정된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인 진행에 나섰다. 주민총회를 열어 각 마을이 처한 상황과 전반적인 생활환경, 문제점을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마을 안길을 포장하거나 교량 난간 보수,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등의 전체적인 시설 보강에 주력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새마을교육은 빠지지 않았다. 이 모두 익히 새마을운동을 알고 있고, 또 추진할 의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2021 피지 새마을 워크숍」을 지난 1월 5일 현지에서 개최, 마을별 새마을운동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피지 정부 '10개년 농촌개발계획(2021~2031)'과 새마을운동의 연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김석진 사무총장과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단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부터 1월 7일까지 피지에서 '2021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결과'를 확인·평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진행 경과를 진단했다.

우간다, 시민 의식을 바꿔놓다

새마을운동의 기적은 우간다에서도 이어졌다. 우간다의 상황도 피지와 비슷했다. 우간다의 경우, 2009년 안행정부의 새마을

운동 세계화 사업을 시작으로 2곳의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렇게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우간다 내부에서 개도국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와 마을환경개선,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등의 우수사례를 선보이며 새마을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신규사업을 추진, 현재 7곳의 시범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 진행에 나섰다. 이밖에도 2021년 기준 약 362개의 자생마을이 한국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이념인 근면과 자조, 협동의 가치가 우간다 전역에 동심원처럼 퍼져가는 것이다.

제3차(2021~2025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선정된 7개 마을은 칼라갈라(Kalagala)마을, 캉구루미라(Kangulumira)마을, 키우구(Kiwugu)마을, 카삼비아(Kasambya)마을, 키왈라시(Kiwalasi)마을, 시타(Seeta)마을, 수나(Soona)마을이다. 특히 이번 추진 사업에서는 마을 환경 및 경작지 개선과 식수 확보와 같은 시급한 생활환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며, 경제적 소득증대를 위한 작물 재배와 가축사육 사업도 추가 진행함으로써 마을 발전에 힘쓰고 있다.

시범마을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
우간다 캉구루미라마을 아이들이 식수펌프에서 물을 뜨고 있는 모습

3
새마을운동으로 변화된 우간다 카노니아마을의 작물성가를 설명하고 있는 마을주민



Uganda



4
온두라스 쿠알리마을 주민들이 그간의 새마을운동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5
온두라스 팔미찰 카르멘 시범마을 주민들



Honduras

것은 식수였다. 식수원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가축분뇨, 외부 경작지의 비료사용으로 인한 오염원의 유입 등에 취약해 주민들이 수인성 질병에 시달렸다. 더구나 외부로 노출된 식수원은 익사할 우려도 있을뿐더러, 식수 조달 시간·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었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수원지 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수원지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외부 노출을 막고, 식수 파이프를 연결해 식수 조달 시간을 단축해 안정적인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현재까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우간다에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5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생마을이 자체적으로 생겨날 정도로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건, 교통, 교육, 도로 등 기초 사회 인프라를 담당하는 우간다 현지 부처 역시 지역사회개발 모델로 새마을운동 방식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온두라스, 협력의 토대를 만든다

온두라스에 새마을운동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은 2015년 한-온두라스 정상회담에서 새마을운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후, 온두라스 정부는 지역개발식수위생부를 새마을운동 담당 부서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에 나서게 되었고, 현재까지 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부터 4곳의 시범마을을 운영 중이며, 공통적인 주민숙원 사업인 전반적인 시설 개선과 식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온두라스는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우선 마을회관과 보건소를 설립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성 높은 의료혜택과 유행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및 위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두라스의 주소득원인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추가로 건립하고, 직접 커피를 생산·가공해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농촌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세계적으로 널리 주목받고, 보급되면서 하나의 국가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에서 찾기 어려워진 새마을마크는 각 현지 국가에선 한류의 상징처럼 인식될 정도다. 이처럼 한 시대의 케케묵은 수식처럼 여겨지던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 공동체 발전에 힘쓰고 그 희망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구강 관리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년기 건강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건강관리가 바로 치아 관리다.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해 치아 개수가 줄어든 기간이 길수록 인지장애 위험이나 치매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가 부족하면 음식을 씹는 기능이 떨어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뇌 활동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어려워진다. 또한, 부드러운 음식을 찾다 보니 씹는 힘이 약해져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다. 이러한 이유로 기억능력·인지기능 등이 약해져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또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 폐 질환,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의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치주질환은 뇌졸중 2.8배, 혈관성 치매 1.7배, 심혈관계질환 2.2배, 당뇨병 6배, 류머티즘성 관절염 1.17배, 조산·저체중아 7.5배,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 1.53배, 황반변성은 1.61배 위험도를 높이는 걸로 알려졌다. 치주질환자는 췌장암 위험이 50~59% 높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기본적인 치아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write.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서울대 의대 겸임교수





수분 충분히 섭취해 구강 건조 막아야

나이가 들면서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질환 대부분은 구강이 건조해져 발생한다. 침을 분비하는 타액선 기능이 줄기 때문에 구강이 건조해진다. 노화가 타액선 기능 저하를 직접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 질환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방사선 요법 또는 항암제 투여로 인해 침 분비가 감소할 수 있다. 또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약물 복용도 구강건조증을 유발한다. 침은 구강 점막에 수분을 공급해줄 뿐 아니라 치아 면에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고, 침 속의 면역 성분이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는 구강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의 분비가 적어지면 입 안이 화끈거리고 음식을 씹고 삼킬 때마다 자극적인 통증, 혀의 감각이상 및 혀의 갈라짐이 생기기도 한다. 입 냄새도 더 잘 생긴다. 의치 착용 시 더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구강이 건조하지 않도록 평소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물 섭취량을 조절하면 된다. 양치질을 깨끗하게 해 입안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구강청결제는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구강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담배, 술, 차, 커피,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 등은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

충치는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해야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구강건조증이 지속되면 구강 안의 자정 작용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난 자리에 치근우식증(충치)이 발생할 수 있다. 단단한



조직으로 돼 있는 치아의 씹는 면과는 달리 치아 아랫부분은 무른 조직이다. 치근우식증이 생기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치아 보존이 어려울 수 있어 평소 정기검진을 통해 충치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좋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치아에 있는 치태(치석 전 단계 물질)를 꼼꼼히 제거해야 한다. 적당한 두께의 치간 칫솔을 사용해 치아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옆으로 문지르듯 닦는 올바른 닦는 방법과 이갈이 등 치아 관리와 관련한 나쁜 습관들은 치경부(치아의 목 부분) 마모를 유발해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갈이는 치아에 끼우는 장치로 예방할 수 있다.

식습관 조절도 필요하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 치아 표면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는 끈적거리는 음식, 당류가 과도하게 포함된 음식은 피할 것. 물을 수시로 마셔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할 것. 치태를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것 등의 지침을 지키면 좋다. 최근엔 비타민 B군의 일종인 엽산 섭취가 부족하면 치근우식증(충치)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음식 섭취도 잘 해야 된다. 특히 엽산은 녹색 채소와 곡물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치주병(잇몸병)은 스케일링으로 예방

대표적인 노인 구강 질환인 치주병은 치아 주변의 잇몸과 뼈에 생기는 질환이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노인은 치아 사이의 잇몸이

내려가면서 공간이 생기는데, 치주병이 있으면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된다.

치주병은 치아 주변에 자리 잡은 세균이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결합해 치아 표면에 치태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치태가 점차 쌓이면서 단단한 치석으로 굳어져 염증을 발생시킨다. 초기에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날 수 있다. 점차 진행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 전체가 약해져 치아 균형이 빠르게 무너진다. 자연적으로 치아가 빠질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치아를 제대로 닦는 것이 중요하데, 하루에 칫솔질을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잇몸에 붙은 치태를 제거하는 올바른 칫솔질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사이, 이와 잇몸 사이는 음식물이 자주 끼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치석이 생기면 칫솔질만으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연 1회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올바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실된 치아의 개수나 부위에 따라 선택해야

충치와 잇몸질환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치아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치아가 상실되면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손실된 치아를 방지하면

노화가 더욱 빨라져 외적으로도 급격히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수복 치료를 받고 기능적·심미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상실된 치아의 개수나 부위에 따라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적절한 방법으로 치아 기능을 대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해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치근을 심은 뒤 그 위에 치아 모양의 인공치아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한 사람당 2개까지 비용의 30% 본인 부담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약'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가능하다. 남은 치아 개수 상관 없이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료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치아가 빠진 채 방치하면 인공치근을 식립할 잇몸뼈가 줄어들어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치료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

과거엔 아프거나 불편할 때 치과를 방문했지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아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과 조기 치료를 받는 게 좋다. 🌟



탄소중립 실천하는 착한 IT기기 사용법



0%
Data
CO₂

지금 인류가 당면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이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탄소중립' 개념이 등장했고, 현재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경제구조 개편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또 있다. 탄소중립은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일상에서 개개인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탄소중립 실현은 이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탄소저감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write. 성혜경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PC 같은 IT 기기를 이용하는 횟수와 시간이 부쩍 늘어난 요즘이다. 대면회의 대신 온라인 화상회의를, 극장 대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 관람을 하는 일도 낯설지 않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IT 기기를 사용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불필요한 데이터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에서 정보를 공유하려면 데이터센터에서 정보를 저장·공유하는 서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기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메일 다이어트와 같이 저장 데이터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사용할 때 '다크모드(Dark Mode)'로 설정하는 것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1시간 동안 동영상을 보면 자동차로 1km 주행할 때와 비슷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 다크모드로 설정하면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크모드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영역은 어두운 배경의 화면이 나오도록 하는 모드로 전력 소모량을 줄여 환경보호로 이어진다. 특히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PC 화면에서 다크모드를 설정하면 소비전력을 25~30%나 줄일 수 있다.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어도비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에 다크모드를 지원하고 있다. 또 네이버, 카카오톡 등도 다크모드를 선보이고 있다.

또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동영상 화질을 낮춰 시청하면 전력을 아낄 수 있다. 울트라HD 또는 4K 고화질 영상 대신 일반화질 영상을 선택하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음악 스트리밍 역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같은 곡을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라면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를 받아 듣는 것이 좋다.

인터넷 사용 기록 및 쿠키를 남기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모드 또는 시크릿 모드 사용도 불필요한 트래픽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튜브, 구글, 크롬의 경우 사용자의 과거 시청 기록을 추적하지 않는 시크릿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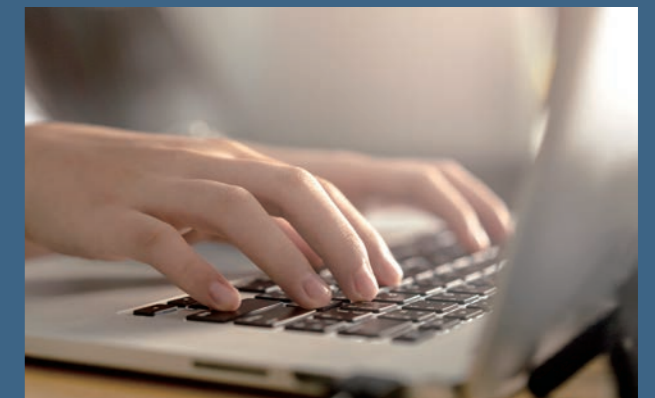
이밖에도 각 IT 플랫폼 마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 찾아보고 적용해보자. 카카오톡에서 이미 누군가에게 전송했던 사진·동영상 등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때 새로 파일을

첨부하는 것보다 기존에 전송했던 사진·동영상의 말풍선 옆의 '공유' 버튼을 누르면 추가 데이터 소비 없이 전송할 수 있다.

모바일 청구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시의 경우 한 달에 발송하는 수도요금 고지서만 94만 장이라고 한다. 고지서 종이 1장을 생산하는 데 3g의 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만 줄여도 탄소저감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마지막으로 대기전력이 낮거나 절전모드가 있는 제품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플러그 뽑아두기, 과잉 충전하지 않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절약 습관들을 실천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IT 서비스들은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자원낭비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 장비나 에어컨과 같은 여러 시설들이 필요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많은 자원 소비와 환경오염이 따른다. IT 기기를 사용할 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탄소중립 실천의 시작일 것이다. ↓



1 2022년 사무식 (2022.01.03.)



중앙회는 지난 1월 3일 제3강의실에서 중앙회원단체장, 중앙회·연수원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식을 가졌다.

이날 사무식은 신임 중앙회 부서장 및 사무처장의 임용장 수여와 중앙회원단체장의 신년덕담, 중앙회장 신년사, 직원간 신년하례로 마무리됐다.

염홍철 중앙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만큼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 한 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 주한 페루대사 내방 (2022.01.24.)



염홍철 중앙회장은 지난 1월 24일 다울 마뚜데 메히아 주한 페루 대사와 새마을운동중앙회 2층 접견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날 새마을운동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뚜데 메히아 주한 페루 대사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편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농촌 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염홍철 중앙회장은 “앞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페루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 중앙회원단체별 이사회 및 정기총회 (2022.02.08.~11.)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는 지난 2월 8~11일까지 중앙회에서 각각 2022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 및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서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단체별 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추진실적보고를 비롯한 의안심의가 이뤄졌다.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회장 김종복)는 지난 2월 8일 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이사회는 대면으로, 정기총회는 서면방식으로 진행했다. 협의회는 2022년 추진방향을 임원 워크숍 및 생명운동 다짐대회, 생활속 안전지킴이운동, 획집통합을 통한 시대적 방향 설정 등으로 정했다.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회장 조승희)는 지난 2월 11일 이사회·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올해 부녀회는 2022년 추진방향을 새마을부녀회의 역량강화와 영속적 발전을 위한 젊은 회원 확대 추진

탄소중립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동참 및 확대,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새마을부녀회원의 유대감 증진 및 조직운영의 일체감 조성 등으로 정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전문수)는 지난 2월 9일 이사회·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올해 추진방향을 탄소중립 문화 조성, 상생과 통합, 공동체 의식 회복으로 정했다.

새마을문고중앙회(회장 박경수)는 지난 2월 11일 중앙회 제4강의실에서 이사회·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회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올해 2022년 새마을문고운동 추진방향을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독서문화운동 새마을 독서문화공간을 거점으로 한 지역문화운동 전개,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연대·협력으로 현장문화활동 확대 등으로 정했다.

4 지역균형뉴딜 지역협력추진 협약식 참석 (2022.02.09.)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지난 2월 9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지역협력 플랫폼'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협의회, 광역플뿌리 주민조직 14단체, 지역혁신기관 5단체, 중간지원조직 8단체의 위원장 및 기관별 대표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균형뉴딜 지역협력 플랫폼은 지역 내 다양한 조직들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디지털·저탄소 경제, 친환경 사회로의 구조적 대전환을 이루고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체감형 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염홍철 중앙회장은 “지역기반 공동체운동의 주체로서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지역균형뉴딜 지역협력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5 제235차 이사회·2022년 정기 대의원총회 (2022.02.14, 2022. 02.24.)



중앙회는 지난 2월 14일 중앙회 제4강의실에서 임원 및 중앙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전회 이사회결과 보고, 2021년도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안), 2022년도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 2월 24일에는 2022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103조2에 의거 대선기간(2.15~3.9) 모임 금지에 따른 것이다.

대의원 340여 명의 서면의결은 2월 23일까지 중앙회 도착분으로 의결사항은 2021년도 주요사업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22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이다. 중앙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2022년 사업계획을 통해, MZ세대의 관심과 참여로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만들어 내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새마을운동 질적 변화와 새마을운동을 실질적인 국민운동 조직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편,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2021 시도 및 시군구 종합평가 사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도 소식

서울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명운동 전개

서울시새마을회(회장 김일근)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양천구를 시작으로 관내 10개구에서 '청소년 생명운동 탐구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탐구교실은 초·중·고등학생 1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Y-SMU 포럼(대표 이나라, 이현진) 회원 15명의 눈높이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

새해맞이 사랑의 떡국 떡 나누기

인천시부녀회(회장 이정자)는 지난 1월 26일 관내 10개 구 새마을회관에서 '새해맞이 사랑의 떡국 떡 나누기'를 실시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을 기탁한 SK인천석유화학 등의 지원으로 관내 홀몸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 등 800여 가구에 떡국 떡 800개와 사골곰탕 1,600개를 전달한 이번 나눔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별로 진행됐다.



울산

시·구군회장, 구청장(군수) 간담회 개최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해 구청장(군수)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5개구군 회장단은 1월 25일 간담회를 갖고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구군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살맛나는 공동체를 위한 새마을운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이불 전달식

부산시새마을회(회장 제종모)는 지난 1월 17일 새마을회관 강당에서 '사랑의 이불 전달식'을 개최했다.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이웃돌봄봉사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회는 이날 쪽방촌 962가구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불을 가가호호 전달했다.



광주

광주그린 생명운동 전개

광주시새마을회(회장 정경주)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주그린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27일과 29일 새마을회관과 관내 4개구 주요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며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홍보했다.

세종

코로나19 검사소 지원활동

세종시협의회(회장 임한석)와 부녀회(회장 엄미숙) 회원 23명은 지난 2월 7일 시보건소와 시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검사자 동선 및 문진표 작성 안내, 검사키트 배분 등을 지원하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안정을 기원했다.



대구

희망 품은 정꾸러미 나눔

대구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지난 1월 6일 대구시 의료진들에게 '희망 품은 정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행복한 동행 1% 나눔 후원 사업기금으로 떡국 떡 4,590kg을 준비한 회원들은 8개 구군의 거점 대학병원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눴다.



대전

문고-지필문학 '독서문화 진흥' 협력

문고 대전시지부(회장 권철원)는 지난 1월 24일 시회관 회의실에서 지필문학(회장 박세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두 기관은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봉사를 약속하고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

SNS를 통한 활발한 소통 전개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송재필)가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새마을 TV를 통해 31개 시군의 현장 활동과 회원들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담아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새마을운동으로 소개하고 있어 화제다. 또한 유튜브는 물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경기도새마을운동을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새마을운동을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강원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 시작

강원도새마을회(회장 박형배)는 2022년을 맞아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범도민 실천운동 전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아이스팩 사용 줄이기 운동과 함께 재활용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정기적인 수거활동 등을 관내 18개 시군 전역에서 새마을지도자들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

코로나19 방역 캠페인 전개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구자강)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특별방역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도새마을회와 14개 시군 회원 300여 명이 총 15회에 걸쳐 시군별 주요도로와 시외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준수를 홍보하며 마스크 2만9천여 개를 배포하여 도내 방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썼다.



경남

희망찬 경남! 시군협력운동 평가 시상

경남남도새마을회(회장 안화영)는 지난해 12월 28일 2021년 새마을운동 사업실적과 조직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시군을 시상·격려했다. 자조상, 협동상, 노력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의 영예의 1등(자조상)은 '따로 또 같이'를 주제로 다문화가정주부 한 국전통문화체험사업 등을 추진한 통영시(회장 임명률),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에 남다른 성과를 나타낸 남해군(회장 정철이)이 차지했다.



충북

살맛나는 공동체를 위한 현장운동, 종합평가 시상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이화련)는 지난해 현장새마을운동과 조직운영에 큰 성과를 일군 시군새마을(지)회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지난 2월 17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영예의 최우수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헌신적 활동을 펼쳐온 청주시새마을회(회장 이종화)다. 한편 도협의회(회장 진기회) 종합평가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112회 964명 참여), 영농폐기물 수거 등의 성과를 낸 진천군협의회(회장 김진주)가, 도부녀회(회장 곽명순)는 아이스팩 재활용캠페인(43개 수거함 설치, 4,400개 수거, 2,950개 재공급)과 반찬 나눔 등의 활동을 추진한 청주시부녀회(회장 조정숙)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전남

깨끗한 전남 만들기 확산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이귀남)는 2022년 탄소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운동 전개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깨끗한 전남 만들기를 위한 정결활동 및 해양 정화운동, 생태하천 복원운동이 그것이다. 특히, 관내 16개 시군이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전남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해양폐기물 등 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제주

북(BOOK)향기 가득한 제주사회 만들기

문고 제주도지부(회장 유철수)는 지난 1월 11일 대한적십자사제주도지사(회장 오홍식)와 제주은행 서광로지점(본부장 정상현) 2개소에 각각 책장과 총 900권의 도서를 비치했다. 문고는 '북(BOOK)향기 가득한 제주 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총 5개소에서 도민 누구나 도서를 무료로 셀프 대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비치된 도서는 총2만여 권에 달한다.

충남

도·시군회장, 도지사와의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이경윤)는 지난 1월 7일 충청남도청에서 양승조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충남, 더불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살맛나는 공동체' 추진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경북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전개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이종평)는 2022년 범도민 이웃사랑 전개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 1월 19일 경상북도 도시사와 경북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이화련 도회장과 조성현 협의회장, 김옥순 부녀회장, 이수홍 직장·공장협의회회장, 김성현 문고회장은 이웃사랑 행복나눔을 위한 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북5도

2022년, 통일새마을운동 중점 추진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2월 10일 2022년도 정기총회를 실시하고 '통일새마을운동'의 중점추진을 결의했다. 도새마을회는 2022년 통일새마을운동 워크숍 개최를 비롯해 통일새마을꽃동산 기르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고향 송편 빚기, 북녘 다제내성결핵환자 치료성금 모금 등을 통한 평화운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현장은 지금

서울 · 부산
대구 · 인천
광주 · 대전
울산

생명

- 문고 부산 남구 대연동분회(회장 여운연)는 지난 1월 10일 행정복지 센터에서 탄소중립 천연비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천연 비누 600개를 만들어 300개를 기증했다.



- 대구 수성구새마을회(회장 양균열)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지난 2월 17일부터 2주간 대구스타디움 선별진료소에서 접수안내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대구 서구 상중이동협의회(회장 황순진)와 부녀회(회장 김인숙)는 지난 1월 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거한 아이스팩(약 90kg)을 정리했다.



- 광주 동구새마을회(회장 박헌조)는 지난 1월 14일 새마을회 사무실에서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 동에서 수거한 아이스팩 200여 개를 지역 내 상가에 전달했다.
- 광주 남구새마을회(회장 김진호)는 지난 1월 28일 백운광장에서 회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포식'을 갖고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했다.
- 대전 중구 문창동부녀회(회장 정경순)는 지난 1월 20일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거한 아이스팩 500개를 문창전통시장 내 정육점에 전달했다.
- 울산 남구 아음장생포동부녀회(회장 장미선)는 지난 1월 22일 관내 버스 승강장 25개소를 청소 및 소독하고, 불법 현수막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 인천 서구새마을회(회장 이부중)는 지난 2월 13일 석남동성당에서 '다문화가정 사랑의 물품 전달식'을 갖고 300만 원 상당의 쌀 1,000kg(이부중 회장 기탁)과 닭가슴살 100kg(안선희 직장·공장협의회장 기탁)을 전달했다.

- 부산 북구협의회(회장 좌중국)는 지난 1월 28일 북구청에 설을 맞아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간식 115상자를 기탁했다.

- 울산 동구 전하2동협의회(회장 김기령)와 부녀회(회장 김옥연) 지난 2월 23일, 화정동협의회(회장 전영태)는 22일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간선도로변에 나라사랑 태극기를 게양했다.



공동체

- 서울 중구지회(회장 김명근)는 지난 2월 14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충남 홍교도소를 방문해 땅콩 400봉을 전달했다.
- 직장·공장 서울중로구협의회(회장 우명욱)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마을회관에서 다문화 및 탈북민 40세대를 위한 겨울용품키트를 제작했다.



- 서울 용산구부녀회(회장 서연순)는 지난 1월 3일 지회사무실에서 취약계층 자녀 120명에게 산타원정대 크리스마스 휴파티 케이크와 과자선물상자 120개를 각각 전달했다.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부녀회(회장 한성숙)는 지난 1월 13일 관내 어르신 50가구를 방문해 인부를 묻고 떡국 떡과 시골국을 전달했다.
- 서울 중랑구 면목5동부녀회(회장 황재왕)는 지난 1월 2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떡국 떡 판매를 통해 얻은 40만 원 판매 수익 전액을 중랑구에 기부했다.
- 문고 서울 성북구 안암동분회(회장 이은미)는 지난 1월 6일부터 7일

News

- 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성신여자고등학교 50명의 학생이 참여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 작품들은 동그라미로부터 사고를 확장하는 활동을 미술작품으로 표현했다.

- 서울 강북구새마을회(회장 차중재)는 지난 1월 27일 강북구청에서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250만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 서울 은평구 불광동부녀회(회장 김옥래)는 지난 1월 2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떡국 떡 60kg과 라면, 곰탕 등을 전달하는 설 맞이 사랑의 떡국 떡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 서울 서대문구지회(회장 전영희)와 협의회(회장 이재복)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마을회관에서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300명에게 겨울용 보온 내의를 전달하는 온맵시 내복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서울 마포구부녀회(회장 김설란)는 지난 1월 27일 성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떡국 떡을 직접 썰어 관내 어르신 200가구에 전달했다.



- 서울 서초구 내곡동부녀회(회장 송영복)는 지난 1월 2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떡국 떡, 식혜, 김, 음료 등을 관내 홀몸 어르신 50명에게 전달했다.
- 서울 송파구 마천동부녀회(회장 고복순)는 지난 1월 2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개최하여 관내 취약계층 24가구에 설맞이 음식을 전달했다.
- 서울 강동구부녀회(회장 정요의)는 지난 1월 10일 새마을지회에서 (주)청정마스크(대표 허광범) 업체로부터 후원받은 마스크 11,000장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 문고 부산 중구 보수동분회(회장 하미희)는 지난 1월 19일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백미 200kg을 전달했다.
- 문고 부산 서구지부(회장 박장희)는 지난해 12월 27일 서대산동 고분도리미를 취약계층에게 롤케이크 100개를 전달했다.
- 부산 영도구 영선2동협의회(회장 정철성)와 부녀회(회장 김은경), 문고(회장 박인옥)는 지난 1월 2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소외계층 20세대에게 강정 및 떡국 나눔을 실시했다.
-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협의회(회장 명광수)는 지난해 12월 3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46세대를 대상으로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 부산 동래구 복산동부녀회(회장 엄순덕)는 지난 1월 17일 관내 홀몸 어르신 30가구를 방문해 인부를 묻고 떡국 떡 2kg씩 전달했다.
- 직장·공장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김준홍)는 지난 1월 25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방문해 백미, 라면 등 2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 대구 남구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지난 1월 6일 남구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사랑의 떡국 떡 80상자를 전달했다.
- 직장·공장 대구 북구협의회(회장 김용주)는 지난 1월 24일 관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 300가구에 라면 74상자와 휴지·강정 300개를 전달했다.
- 인천 중구새마을회(회장 윤경원)는 지난 1월 26일 중구청에 떡국 떡 300봉(600kg)을 전달했다. 전달한 떡국 떡은 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나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인천 동구 금창동부녀회(회장 이미지)는 지난해 12월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과 자구대, 소방서 관계자 50여명에게 동지 팔죽과 곁절이를 전달했다.
-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부녀회(회장 이영우)는 지난해 12월 3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저소득가정 50세대를 대상으로 떡국 떡 94kg과 달걀 1,500개를 전달했다.
- 인천 연수구 연수1동부녀회(회장 장군자)는 지난 1월 2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저소득가정 및 홀몸 어르신 120세대를 대상으로 떡국 떡 2kg 120봉을 전달했다.
- 부산 해운대구협의회(회장 전찬영)는 지난 1월 5일 한부모가정 70가구의 결식아동을 위해 마련한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긴 사랑의 꾸러미를 해운대구청에 기탁했다.
- 인천 남동구부녀회(회장 황금덕)는 지난 1월 26일 새마을회관에서 사랑의 떡국 떡 나눔 사업을 통해, 떡국 떡과 사골육수 100세트를 남동구 장애인복지관에 기탁했다.
- 광주 서구새마을회(회장 최덕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구청에서 소방본부 등 관내 시설 50여 곳에 떡국 떡 700상자(1,930kg)를 전달했다.
- 대전 동구새마을회(회장 강광석)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마을회 및 회원단체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회관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 대전 서구 기성동부녀회(회장 배미옥)는 지난 2월 14일 정성가득 담아 만든 대보름맞이 나물 3가지와 땅콩을 홀몸 어르신 30가구에 전달했다.
- 울산 중구협의회(회장 정수용)는 지난 1월 17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밑반찬 10세트(5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 경기 안산시새마을회(회장 임충열)는 지난 1월 6일 상록수역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으로 탄소중립실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 경기 성남시 구미동협의회(회장 김지천)와 부녀회(회장 김순호)는 지난 1월 13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급증한 가운데 관내 버스정류장, 도서관, 공용주차장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 경기 평택시 신장2동협의회(회장 김광덕)와 부녀회(회장 최금자)는 지난 1월 27일 송탄역 부근 공원 및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 경기 군포시새마을회(회장 서태연)는 지난 1월 11일 산본역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한 백신 접종 참여 호소 캠페인을 전개했다.
- 경기 포천시 창수면부녀회(회장 장금자)는 지난 2월 14일 '사랑의 헌 옷 모으기'를 실시해 12톤을 수거하고 그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강원 강릉시 교2동협의회(회장 최윤석)와 부녀회(회장 이옥순)는 지난 1월 27일 강릉역 일원에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정비 및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 강원 속초시새마을회(회장 이영철)는 지난 1월 29일 조양동협의회(회장 최광용) 회원들이 관내 아이스팩 수거함 16곳을 돌며 500여 개의 아이스팩을 거둬들였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과 건조를 거쳐 관내 상가에 전달될 예정이다.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작2동협의회(회장 박신훈)와 부녀회(회장 배한미)는 지난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환경취약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흥덕구 강서동협의회(회장 김석기)와 부녀회(회장 임현순)도 지난 1월 27일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 충남 공주시새마을회(회장 백승근)는 지난 1월 28일 깨끗한 공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6개 읍면동 숨은자원찾기 사업을 추진한다. 숨은자원찾기 사업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농폐비닐, 농약 빈용기, 폐건전지 등 숨은 자원을 집중 수거해 겨우 내 지저분한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으로 마을기금도 조성하는 자원재활용 실천 사업이다.



- 충남 당진시 고대면협의회(회장 김종익)와 부녀회(회장 이진숙)는 지난 1월 2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당진종합운동장까지 약 7km 구간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당진3동협의회(회장 이종민)와 부녀회(회장 권오철)는 지난 1월 26일 관내 위생취약지역 1km구간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평화

- 충북 충주시 칠금금릉동협의회(회장 장양화)와 부녀회(회장 백명자)는 지난 3월 1일 관내 행정복지센터 앞 새마을동산에서 제03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동산을 조성해 나라사랑과 애국심 진작에 기여하였다.



공동체

- 세종 부강면협의회(회장 원광희)와 부녀회(회장 송미자) 회원 28명은 지난 1월 25일 저소득 120가구에 각 4kg의 떡국 떡을 전달하며 이웃간 정을 나눴다.
-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윤진석)는 지난해 12월 28일 관내 화귀나치 질환을 앓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도배·장판 교체 및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을 돕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을 했다.
- 경기 고양시 관산동부녀회(회장 김정열)는 지난 1월 26일 홀몸 어르신 70가구에 떡국 떡과 불고기, 만두를 전달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 경기 용인시새마을회(회장 김춘연)는 협의회(회장 송태일), 부녀회(회장 김길자), 문고(회장 김문석) 지도자들과 지난 1월 26일 무료급식소에서 명절맞이 '사랑의 효 떡나눔' 사업을 통해 홀몸 어르신 86명에게 백미 220kg으로 떡국 떡을 만들어 김과 함께 전달했다.



- 경기 부천시 도당부녀회(회장 김정숙)는 지난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이해 홀몸 어르신 50세대를 방문해 떡국 떡, 김, 누룽지, 요구르트를 전달했다.

- 경기 안양시 박달2동부녀회(회장 김종삼)는 지난 1월 25일 관내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30가구에 떡국 떡을 전달했다. 평안동부녀회(회장 이강애)도 지난 1월 26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떡국 떡 2kg과 김 1상지씩 전달했다.
-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부녀회(회장 전춘화)는 지난 1월 17일 주민센터에 홀몸 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가구에 전달할 떡국 100상자를 기부하며 의정부시의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했다.
- 경기 파주시새마을회(회장 김경선)와 협의회(회장 신경재), 부녀회(회장 김명지)는 지난 1월 24일 파주스타디움에서 드라이브루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역에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할 사랑의 백미 10kg짜리 350포대를 배부했다.
- 경기 광명시 광명5동협의회(회장 황의경)와 부녀회(회장 박혜숙)는 지난 1월 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려운 가정 대학생 4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경기 광주시 도척면협의회(회장 윤영민)는 지난 1월 20일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떡국 떡 280kg(8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 강원 춘천시지회(회장 윤화섭)와 새마을사랑모임(회장 신영자)은 지난 2월 11일 춘천북부노인복지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간식으로 한과 100봉(5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 강원 원주시 신림면협의회(회장 김중대)와 부녀회(회장 원영자)는 지난 1월 26~27일 이틀간 '행복 나눔 가래떡 판매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금으로 떡국을 만들어 소외계층 50여 가구에 전달했다.
- 강원 태백시 구문소동협의회(회장 이윤재)와 부녀회(회장 김한순)는 지난 1월 2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80가구에 떡국 떡 등 물품을 전달했다.
- 강원 홍천군 두촌면협의회(회장 장정기)는 지난 1월 27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80만 원을 기탁했다.
- 강원 횡성군 횡성읍협의회(회장 선승환)와 부녀회(회장 함영숙)는 지난 1월 19일 주민자치센터 1층에서 떡국 떡과 명절음식을 만들어 관내 어려운 이웃 130가구에 전달했다. 갑천면협의회(회장 김춘시)와 부녀회(회장 허정자)는 지난 1월 2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형편이 어려운 이웃 85가구에 떡국 떡과 함께 위로를 전했다.
- 강원 영월군 주천면협의회(회장 이영목)는 지난 1월 27일 면사무소에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라면 60상자(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 강원 평창군 대화면협의회(회장 김명수)와 부녀회(회장 마영희)는 지난 1월 27일 어울마당에서 설맞이 떡국 떡 나눔 사업을 펼치고 관내 어려운 이웃 300세대에 전달했다. 같은날 봉평면협의회(회장 김진영)와 부녀회(회장 박경주)도 복지센터에서 전, 과일, 떡국 떡을 준비해 관내 홀몸 어르신 30세대에 전달했다.
- 강원 철원군 동송읍협의회(회장 변영석)와 부녀회(회장 신순희)는 지난 1월 26일 관내 저소득층 가정과 홀몸 어르신 6세대에 사랑의 연탄나눔을 통해 200장씩 총 1,2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 충북 제천시 금성면협의회(회장 김명기)와 부녀회(회장 김정옥)는 지난 1월 10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요한네 집과 제천영육아원을 방문해 15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청진동협의회(회장 권영범)와 부녀회(회장 유인숙)도 지난 1월 26일 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로 인해 외롭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 50상자를 전달했다.
- 충북 보은군새마을회(회장 황선영)는 지난 1월 19일 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산외면협의회(회장 이갑주)와 부녀회(회장 최정애)는 지난 2월 3일 면사무소에 관내 홀몸 어르신,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떡국 떡 3kg 100상자(15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 충북 옥천군 청산면협의회(회장 전대우)는 지난 1월 1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쌀곡수 150상자(2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 충북 영동군새마을회(회장 김종옥)는 협의회(회장 김성운), 부녀회(회장 오영실)와 함께 지난 1월 26일 영동읍 자원봉사센터에서 명절맞이 음식 나눔을 실시했다.
- 충남 천안시부녀회(회장 이명숙)는 지난 2월 2일 100인분의 곰탕 육수를 정성껏 만들어 천안노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정에 배달하고 따뜻한 담소를 나누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 충남 보령시 성주면협의회(회장 김웅)와 부녀회(회장 이명숙)는 지난 1월 26일 지역내 소외계층 33가구에 김, 고기 등을 전달했다.
- 충남 아산시 온양4동협의회(회장 한덕희)와 부녀회(회장 변현숙)는 지난 1월 3일 (사)좋은이웃중앙회 아산시지회(회장 손은숙)에서 기부한 연탄 400장을 관내 취약계층 1가구에 배달했다. 또 지난 1월 27일 관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계란, 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위로했다.
- 충남 서산시 운산면부녀회(회장 안화자)는 지난 1월 2일 관내 형편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에게 떡국과 과일 등을 전달하며 말벗 되어드리기 활동을 했다.
- 충남 논산시 벌곡면부녀회(회장 김금자)는 지난해 12월 29일 시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 충남 계룡시부녀회(회장 이정미)는 지난 1월 26일 출산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산모 5명에게 미역국을 만들어 전달했다.
- 충남 부여군지회(회장 조세연)는 지난 1월 26일 새마을회관에서 1,120만 원 상당의 떡국 떡 2,240kg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대외협력

- 경기 남양주시새마을회(회장 이덕우)는 지난 1월 5일 남양주시청 1층 이석영마루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활동과 방향성 시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 경기 시흥시부녀회(회장 강갑순)와 부천세종병원(원장 이명목)은 지난 1월 25일 새마을지도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북 전주시 인후3동협의회(회장 황승일)와 부녀회(회장 박민순)는 전주역에서 한옥마을로 연결되는 건천로 1km구간에 화분 50여 개를 만들어 남천 300여 개를 심었다.
- 전남 순천시 삼산동부녀회(회장 손옥덕)는 지난 1월 28일 봉화산 주변 산책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플로깅을 했다.
- 전남 나주시 산포면협의회(회장 황채열)와 부녀회(회장 정영남)는 지난 1월 5일 면사무소 주변에서 환경정화활동으로 폐농약 병과 비닐수거를 했다.
- 전남 영암군 신북면부녀회(회장 임춘화)는 지난 1월 25일 관내 일원에서 설맞이 마을 대청소를 실시했다.
- 전남 무안군 삼향읍부녀회(회장 권숙희)와 무안읍부녀회(회장 양복순), 망운면부녀회(회장 이희숙)는 지난 1월 28일 각 관내 주요거리에서 설 명절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 전남 구례군새마을회(회장 임종선)는 지난 1월 28일 설을 앞두고 관내 8개 읍면에 코로나19 예방 현수막을 게시했다.
- 전남 해남군 황산면협의회(회장 박형수)와 부녀회(회장 백진정)는 지난 1월 14일 관내 시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잠시 멈춤' 캠페인을 실시했다.
- 경북 김천시 개령면협의회(회장 나영기)와 부녀회(회장 여향연)는 지난 1월 26일 설을 앞두고 관내 일원에서 코로나19 방역 소독 및 쓰레기 수거를 실시했다.
- 경북 영주시 상망동협의회(회장 박상길)와 부녀회(회장 전윤식)는 지난 1월 24일 관내 일원에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풀베기와 폐기물 수거를 했다.
- 경북 영천시 금호읍협의회(회장 김일호)와 부녀회(회장 허정출)는 지난 1월 27일 관내 일원에서 '설맞이 국토대청결의 날' 사업을 실시했다.
- 경북 문경시 산북면협의회(회장 황영수)와 부녀회(회장 장정숙)는 지난 1월 25일 관내 하천 주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방역 캠페인을 전개했다.
- 경북 청송군새마을회(회장 권동준)는 지난 1월 29일 관내 전통시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장바구니 나눔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을 추진했다.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협의회(회장 서정규)와 부녀회(회장 여수경)는 지난 2월 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친화적 제품 만들기 일환'으로 쌍화차를 만들어 관내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시했다.
- 경남 진주시새마을회(회장 김기철)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일 까지 3일간 관내 30개 읍면동에서 설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경남 하동군협의회(회장 한기식), 부녀회(회장 이미연), 문고(회장 강남석)는 지난 2월 14일 관내 일원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 경남 합천군 합천읍협의회(회장 정성철)와 부녀회(회장 이현옥)는 지난 1월 28일 관내 주요거리에서 설 연휴 대비 코로나19 방역과 쓰레기 수거를 했다.
-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부녀회(회장 장은진)는 지난 2월 19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서 농약병과 농약비닐, 폐비닐 등을 분리·수거하며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실천했다.



공동체

- 전북 전주시부녀회(회장 강영이)는 지난 1월 17일 관내 보육원을 방문해 사랑의 물품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전북 익산시 마동부녀회(회장 이정자)는 지난 1월 2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 가정을 위한 사랑의 떡국 떡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 전북 정읍시새마을회(회장 김학규)는 지난 1월 20일 관내 전통시장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 전북 완주군 화산면부녀회(회장 조승자), 구이면부녀회(회장 이순임)는 지난 1월 25일 관내 소외계층 150가정에 떡, 과일, 계란 등 설맞이 나눔을 실천했다.
- 전북 김제시 금산면부녀회(회장 이은금)는 지난 2월 24일 금남면사무소에서 '지역인재 사랑의 장학금' 60만 원을 관내 학생에게 전달하며 용기를 북돋웠다.
- 전북 부안군지회(회장 권명식)는 지난 1월 10일 군청에서 관내 학생을 위한 장학금 420만 원을 군농인재육성재단에 기탁했다.
- 전남 여수시새마을회(회장 서근전)는 지난 1월 27일 새마을회관에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에 라면 400상자를 전달하는 설맞이 온정 나누기 사업을 실시했다.
- 전남 광양시부녀회(회장 황호순)는 지난 1월 24일 설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시각장애인 22세대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 전남 담양군새마을회(회장 김중수)는 지난 1월 26일 1% 나눔 사업으로 관내 소외계층 13세대에 과일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 전남 곡성군 죽곡면협의회(회장 조중훈)와 부녀회(회장 박복희)는 지난 1월 17일 새해를 맞아 약 15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쌀을 관내 소외계층 28가구에 전달했다.
- 전남 고흥군 도화면협의회(회장 박관규)는 지난 1월 25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50상자를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 전남 강진군협의회(회장 이용득)와 부녀회(회장 전봉덕)는 지난 1월 6일과 12일 각각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 전남 영광군부녀회(회장 김춘영)는 지난 1월 16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이미용과 말벗을 해드렸다.



- 전남 완도군 보길면부녀회(회장 박미숙)는 지난 1월 24일 관내 일원에서 어려운 이웃 70가구에 떡국 떡을 전달하는 '나눔수록 커지는 행복' 사업을 실시했다.
- 전남 진도군새마을회(회장 김형섭),협의회(회장 박성수), 부녀회(회장 추영금), 군내면협의회(회장 이진우), 부녀회(회장 이진수)는 지난 1월 2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떡국 떡을 전달했다.
- 경북 포항시 해동동부녀회(회장 조애경)는 지난 1월 12일 관내 일원에서 홀몸 어르신 50가정에 반찬을 전달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경북 경주시새마을회(회장 손지익)는 지난 1월 28일 새마을회관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 125세대에 식재료 세트를 전달하는 '설맞이 사랑의 떡국나누기' 사업을 진행했다.



- 경북 안동시부녀회(회장 김경란)는 지난 1월 12일 안동시장학회 장학기금 전달식에서 지역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
- 직장·공강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엄민철)는 지난 1월 18일 관내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업을 실시해 연탄 3,000장을 15가구에 전달했다.



- 경북 상주시부녀회(회장 유명숙)는 지난 1월 24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 17가정에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 경북 경산시부녀회(회장 김경화)는 지난 1월 26일 새마을회관에서 영남대 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설맞이 떡국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양희완)는 지난 1월 20일 새마을회관에서 쌀 500kg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을 실시했다.

- 경북 영양군 영양읍협의회(회장 성기원)와 부녀회(회장 권낙향)는 지난 1월 24일 관내 어려운 이웃 가정에 쌀 45포대를 전달했다.
- 경북 영덕군 병곡면협의회(회장 김문덕)와 부녀회(회장 김옥한)는 지난 1월 26일 관내 취약계층 50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세트를 전달했다.
- 경북 고령군새마을회(회장 박중규)는 지난 1월 25일부터 3회에 걸쳐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위한 반찬배달 사업을 실시했다.
- 경북 칠곡군부녀회(회장 장춘화)는 지난 1월 25일 설을 앞두고 관내 8개 읍면 홀몸 어르신 17세대에 생필품과 떡국떡을 전달했다.
- 경북 예천군부녀회(회장 강석자)는 지난 1월 27일 관내 시장 2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을 추진했다.
- 경북 청도군새마을회(회장 정해용)는 지난 1월 14일 청도군인재장학회에 관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 직장·공강 경북 봉화군협의회(회장 어일규)는 지난해 12월 23일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행복정미소에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 경북 울진군부녀회(회장 황영분)는 지난 2월 3일 명절을 앞두고 관내 5개 읍면 홀몸 어르신 가정에 생필품꾸러미를 전달했다.



- 경남 통영시지회(회장 임명률)는 지난 1월 13일 관내 소외계층 이웃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시청에 기탁했다.
- 경남 사천시새마을회(회장 정경수)는 지난 1월 19일 시청에서 500만 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사랑의 온정 나누기' 사업을 추진했다.
- 경남 거제시부녀회(회장 유병옥)는 지난 1월 21일 관내 장애인 이동을 위한 식료품키트를 장애인부모회에 기탁했다.
- 경남 함안군 칠원읍협의회(회장 김경수)와 부녀회(회장 김순선)는 지난 1월 25일 읍사무소에서 관내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가정에 300만 원 상당의 떡국 떡을 전달하는 '사랑의 떡국 떡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경남 고성군 마암면협의회(회장 박성열)와 부녀회(회장 이명주)는 지난 1월 10일 관내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 경남 남해군 고현면협의회(회장 이기)와 부녀회(회장 김미자)는 지난 1월 2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 180가정에 떡국 떡을 전달하는 '사랑의 떡국 떡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경남 가창군부녀회(회장 신영애)는 지난 1월 18일 새마을회관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 120가구에 떡국 떡을 전달하는 '사랑들뿐 떡국 떡 나누기' 사업을 실시했다.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부녀회(회장 고태숙)는 지난 1월 29일 설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 96세대에 떡국 및 생필품 나눔을 실천했다.

소문내기 이벤트

SNS에 <새벽종>을 읽은 후기를 올려 주변 사람들에게 <새벽종>을 알려주세요.



참여방법

- 1 <새벽종>을 읽은 후기를 개인 SNS에 올린다.
- 2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다.
- 3 후기를 올린 SNS 주소, 이름, 연락처를 입력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이벤트 기간 3월 15일 ~ 3월 30일

당첨자 발표 4월 8일 당첨자 개별 연락 / <새벽종> 5 + 6월호 공지

당첨 상품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코웨이 공기청정기
(제세 공기금 본인 부담)
1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30명

새로운 도전, 살맛나는 공동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해온 우리 국민.

새마을운동은 그 감동의 역사 속에 나와 너, 마을과 국가를 이어가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왔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연대에 동참하고

경계를 허무는 소통과 연대를 통해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